

**“가볍게 여행하라, 간단히 하라”**

(누가복음 9:1-6)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딘가로 여행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여행은 의식주의 문제가 모두 준비되고 평소보다 편안하고 기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행을 떠나는데 옷가지가 든 짐과 여행 경비가 든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시작하게 된다면 여행은 결코 즐거운 여행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인생살이에 의식주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교 보내시면서 거의 빈 몸으로 파송 하십니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누가복음 9:3)**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교사 파송 방식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후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놔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먹을 것, 내일/모레 먹을 것, 아무 것도 없이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 되어 전도도 할 수 있고, 사역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매우 인간 중심적인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경험을 다시 기억하도록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35)**

제자들은 처음엔 아무 것도 없이 빈 몸으로 선교를 보내신 예수님을 원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질에 의지해서, 내 능력과 내 계획에만 의지해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순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6:25a, 27)**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33)**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은 날마다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매 순간 어김없이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귀한 은총도 체험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식주 없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와 나중의 문제를 잘 구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마태복음 10:10b)**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지금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 향해 눈을 높이 들고,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십자가를 감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들. 시간과 공간, 언어와 문화를 뛰어 넘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마가복음 9:7a)** 부르심 경험하지 못하면,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한 번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본적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의 부르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초대하실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준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훈련시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홀로 외롭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짝을 지어서 파송 하십니다. 혼자 홀로 사역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 장을 보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둘째, 말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빵이나 돈이 아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을 만들고, 또 그 약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의 처방전은 바로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개인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표의 주인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둘을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9:1)**

제자들은 주님의 처방전을 붙들고, 천국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10:7) '회개하라' (마가복음 6:12) 말씀을 전합니다.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놓임을 받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부족이 아닌 '채워 주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언뜻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파송을 통해 우리는 두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Travel Light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라' 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선교 여행 동안 먹을 음식을 모두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레 몇 개씩 끌고 머리와 등에도 짐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행에 관한 경구는 긴 인생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If you wish to travel far and fast, travel light." -Ceasare Pavese-**

**"On a long journey even a straw weighs heavy." -Spanish Proverb-**

둘째, Keep it simple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을 멋지게 의역했습니다. **Don't load yourselves up with equipment. Keep it simple; you are the equipment. (Luke 9:3, the Message)**

필요한 모든 것을 바지런히 챙겨가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단순함 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육중한 갑옷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자그마한 조약돌이면 충분하였었습니다.

2019년에는 Keep it simple 단순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가지를 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영적 진리는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서 막힌 담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나와 내 가정을 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초청장' 입니다. 먼저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삶에 질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쫓겨가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관계의 문제도 해결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요한 3 서 1:2)**

주간에서 'Travel light, Keep it simple.' 단순함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301 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누가복음 9 : 1-6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운 여행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 2018 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덜어내야 될 짐은 어떤 것입니까?
3.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곳에 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십니까?
4. 사랑하는 속회 식구들과 2019 년을 위한 결단의 기도와 고백을 나눠 보세요.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413 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주기도문**